

三國時代의 灌溉用池에 對하여

— 碧骨堤(金堤)와 碧骨池(唐津郡) —

洪 思 俊

一、 諸言

農耕이 韓國에서 始作되기는 靑銅器時代부터 開始되어 三國時代에 와서는 活潑한 農業을 展開하여 食生活에 主食을 하였던 것이다. 獸獵漁撈에서 食物을 採던것과는 달리 一定한 地域에 定着하고서 集團生活을 한것도 事實인것이다. 農耕에는 田地와 畚土로 區分하였는데 먼저 田地 뒤에 水田을 經營하였다고 보아야 하겠다. 田地는 씨를 뿌리고 耕耘에서 그치거니와 水田은 灌溉水가 絶對的인 要件임에서 먼저 水源을 確保하는 努力이 添加된다. 또한 田地는 平野보다도 山麓傾斜地를 耕作하나 水田은 原平地를 主軸으로 發達하다가 山麓에까지 水平地를 찾아서 人爲的으로 整地하고 稻作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農耕의 史的 考察

三國時代 初期에는 主로 田穀에 依存하다가 時代가 下降하면서 畚稻가 漸次發達하였는데 三國史記 百濟 新羅의 本記를 보면 百濟에 있어서는 勸農桑이 二回①인데 新羅에서는 三回②가 있었고 다음에 自然의 氣象에서 오는 被害穀物을 記錄한것에 百濟는 隕霜害麥 隕霜殺菽 또는 大旱無麥 隕霜害穀等이 六回③인데 新羅는 雹麥苗傷 雨雹桑麥皆傷 雹傷菽麥 隕霜殺菽 雨雹傷禾苗 大風折木偃禾 隕霜害草 또는 霜雹害穀等으로 그쳐

隕霜이 二回에 比하여 雨雹 霜雹가 단연 많은 回數를 거듭하여 總一八④ 회에 이르러 있다. 그뿐만 아니라 虫害로써 蝗害穀이 百濟는 四回⑤ 新羅는 二〇回⑥이다. 다음에 水田에 關한 百濟의 記錄을 보면 西紀三三年(多婁王六年)에 始作稻田하였고 一步前進해서 開稻田이 西紀一七四年(古爾王九年)이 되고 禾苗焦枯가 阿華王一一年 獻合頤禾가 三斤王一一年으로 되었는데 新羅에서는 稻田을 始作한것은 없고 다만 婆娑尼師今五年에 麥連岐가 있고 다음으로 西紀一八六年(代休尼師今三年)에 進嘉禾가 처음으로 보임에서 水田稻作이 있음을 推定하였는데 百濟의 西紀三三年에 比해서 新羅는 西紀一八六年이면 一五三年이 稻作이 記錄上으로 보면 뒤진것을 알게 된다. 其後도 進嘉禾가 五回⑦에 이르며 哀莊王四年에 南郊觀麥이 있음을 보아서 新羅에는 水田보다도 田穀이 主이었던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여기에 덧붙여 말할것은 西紀三八年(多婁王一一年)에 秋穀이 不成하여서 百姓들에게 釀酒를 禁한 일이 있다. 이釀酒가 麥穀의 釀酒인지 米穀의 釀酒인지 分明한 穀類를 알수 없으나 麥作은 夏節에 收獲하고 稻穀은 秋節에 收獲함을 보아서 米穀의 釀酒인것을 짐작하게 된다. 多婁王時代에 百濟의 稻作이 相當한 進展이 있어서 釀酒한 것을 確信하게 된다. 稻作經營은 麥菽類 耕作과는 判異하게 灌溉에 의한 水利施設이 必要하여 自然의 川流를 利用한다거나 人工的堤防을 築造貯水가 必要하게 되는것으로 百濟堤防關係를 보면 有司에게 補水損之田이 西紀一一六年(己婁王四〇年)과 有司에게 修堤防이 西紀一二二年(仇首王九年) 完固堤防이 西紀一五〇年(武寧王一〇年)等 三回가 있는것과같이 新羅에도 修完堤防이 西紀一四四年(逸聖尼師今一一年)과 西紀八五九年(憲安王三年) 修理堤防이 西紀八三一年(法興王一八年) 三回가 있고 다시 失堤를 築堤한게 西紀四二九年(訥祇尼師今二三年)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高句麗에 對해서는 田地나 水田에 있어서 一言半句의 記錄이 三國史記에 보이지 않은것은 무슨 事緣인지 未詳하다.

農耕 稻作에 없지 못할 貯水築堤에 있어서 三國이 鼎立하던 當時에 當

然히 百濟國土內에 있는 碧骨堤가 西紀三三〇年(訖尼師今二年)에 新羅에서 始開碧骨堤로 三國史記에 있음이 問題가 되며 增築碧骨堤는 元聖王六年이 되어 이는 統一新羅에 屬한 記事로 異議가 없는 것이다. 貯水池는 水田耕作에 있어서 必要한 만치 廣域의 水田을 灌溉할 수 있는 堤防新設을 하는 데는 共同의 힘이 要請됨은 勿論이고 따라서 共同의 水利를 보는 것임으로 水田經營에 의한 堤防事業이 三國以後 統一新羅時代에서 高麗를 지나 朝鮮朝에 이르기 까지 韓國全域에 걸쳐서 數千의 大小池가 만들어진 形跡이 東國輿地勝覽에 湖、澤、淵、池、堤等の 이름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들中에는 天然的 溜水を 利用한 것도 있을 것이며 人工的인 湖水도 있을 것이다. 人工的 湖水에는 灌溉를 主로 한 것도 있을 것이나 玩賞專用 또는 玩賞과 灌溉를 兼한 것도 있음즉 하다고 본다 玩賞專用의 事實을 文獻에서 찾아보면 國王을 爲한 苑池의 掘鑿工事が 新羅에서는 西紀六七四年(文武王十四年)에 지금 慶州 雁鴨池로 推定되는 穿池일 것이다.

다음 百濟國에서는 廣州 慰禮城時代 즉 西紀二九一年(辰斯王七年)正月에 못을 파고 山을 만들어서 寄禽과 異卉을 길렀고 穿池造山以養寄禽異卉

熊津에 遷都하여서도 西紀五〇〇年(第二十四代 東城王十二年) 봄에 宮闕東使에 臨流閣을 建立하였는데 높이가 五丈이나 되고 또한 池沼를 파고 奇禽들을 길렀다.

起臨流閣於宮東高五丈又穿池養奇禽

다시 第三王都인 扶餘 즉 泗沘城時代에는 西紀六三四年(第三〇代武王三五年)三月에 現扶餘邑 南에서 一km 未滿에 俗稱, 마라방죽 즉 宮南池가 掘池되었는데 約三萬坪의 水面을 가졌던 廣大한 面積으로 中央에 島嶼가 있었음을 알겠고 掘池의 形態도 苑藝의 技術을 十二分 보이고 있는 것이다. 引水를 二十餘里에서 하였고 四岸에는 楊柳를 심으며 水中島嶼가 神仙이 사는 方丈仙山을 防佛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穿池於宮南引水二十餘里四岸植以楊柳水中築島嶼擬方丈仙山

以上에서 본바와 같이 王을 爲한 宮苑池의 掘穿年代는 新羅보다 百濟가 一八三年이 앞선다고 하겠다.

지금까지는 農耕用의 池沼修築에서 國王의 玩賞用池의 穿池를 아울러 言及하여 본 것이다. 앞으로 金堤의 碧骨堤와 合德(唐津郡)의 碧骨池에 對해서 築堤의 年代를 살펴보기로 한다.

碧骨堤의 築造年代推定

全北 金堤郡의 碧骨堤에 對해서는 앞에서 言及한 바 있다싶이 그 創設을 新羅 第十六代 訖解尼師今(昔氏王朝의 最終王)二一年(西紀三三〇年)으로 되었고 堤材의 長이 千八百步로 三國史記나 東國輿地勝覽⑨에 記載되었는데 訖解尼師今二一年은 百濟第一六代 比流王二七년에 該當되는 것이다. 그것은 新羅國 勢力이 百濟版圖內까지 미치지 못했던 現全北地方이 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當時百濟國은 慰禮城時代로 馬韓國土를 蚕蝕했던 時期이었고 新羅國은 六村部族時代로써 百濟國에 와서 築堤하였다는 것은 言不成說의 三國史記에 誤記인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金堤郡은 本是 百濟의 碧骨郡이 었다가 統一新羅에 와서 金堤로 改稱된 것이 東國輿地勝覽에 明確히 있음은 보아 碧骨堤는 百濟時代의 堤堰이고 新羅時代것이 아님을 推定할 수 있고 碧骨이라는 낱말은 『버를 生産하는 골』의 漢字化한 것으로 稻鄉이라는 百濟말 碧骨이라고 생각된다. 慶尙道에서 지금도 버를 나락이라고 하는데 萬若 碧骨堤가 新羅에서 築堤하였다면 나락이라는 堤名이 남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碧骨이 버골로 百濟時代 稻鄉이라는 뜻의 버골을 다른 곳에서 찾아 보면 忠南 唐津의 소들강(牛野江門)의 끝없는 平野를 灌溉하던 貯水池 合德池가 드러켜서는 碧骨池로 불렸던 것이 唐津郡에 合郡된 河川郡의 山川條에 郡東에 있다하고 大東輿地圖를 보면 東方二十里許 지금의 合德池가 바로 그곳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이 碧骨池에 對해서는 後述하겠음)

그러면 百濟比流王二七년에 碧骨堤가 果然 築堤되었던가 西紀三三年(多婁王六年)에 始作稻田하고 西紀一七四年(古爾王九年)에 開稻田於南澤하였는데 稻田始作에서 一四二年만에 開稻田의 發展을 한 것이고 西紀二二二年(仇首王九年)에 여기에서 有司로 堤坊을 修築한 것이 되는데 西紀三三〇年(比流王二七年)에 碧骨堤같은 巨堤를 新築할 수 있는 國力이 있었을 것인가 堤長이 一、八〇〇步(三、六〇〇步千里)로 五里의 長堤를 築造하자면 動員된 人員과 그 宿食의 施設도 相當하였으리라 생각됨에서 比流王時代의 碧骨堤 築造는 不可能하지 않았을가 보아진다. 開稻田於南澤은 當時王都에서 그리 멀지 않은 水原 平澤地方에 開稻田의 南澤인 것같이 思料되고 碧骨堤같은 巨堤를 築造할 人員과 物量이 있을 國力이 充實하였다 하면 文周王이 高句麗攻擊에서 熊津으로 쫓겨내려오지도 안을 國勢일 것이라 推測되는 것이다.

慰禮城時代는 國基定立의 時期요 國家形成의 時代로써 國家가 安定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試鍊期로써 北의 高句麗와 寧日이 없이 戰爭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며 熊津城時代는 그야말로 戰亂을 避하여 臨時首都로서 暫定的 小康을 維持하려던 時機이었으나 權臣의 發扈로 國政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았고 國王의 威力이 失墜되었던 關係에서 碧骨堤와 같이 長堤巨堰을 敢히 생각치도 못하였던 時代로 밖에 볼수 없는 것이다.

聖王一六年 國都를 所夫里로 遷都하고 나서 一二三年의 泗泚城時代야 말로 文化의 꽃을 피게 하던 王都로써 文物에 富饒 進前이 있었던 것으로 國力이 充實하고 國勢가 팽창하던 時期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國號도 南扶餘國 扶餘族이 立國以來 가장 活氣찬 百濟의 國運이 隆盛하던 黃金時代가 아니던가 생각됨에서 碧骨堤같은 稻田의 灌溉水源確保도 可能하지 않았을까 推測되는 것이다.

한편 高麗 忠宣王때 益齋李齊賢의 樸翁稗說에 碧骨堤築造에 關한 記事가 있다. 新羅眞興王이 碧骨堤를 築造하고 種稻 하였음으로 後人이 그 恩德을 생각하여 羅祿이라 하였다.

樸翁稗說에서 碧骨堤가 新羅眞興王時代에 築造하였다고 하는 것은 李

齊賢先生이 當時巨儒로서 金富軾의 三國史記가 著述된 뒤 二〇〇餘年이 됨에서 訖解尼師今二一年의 始開碧骨堤 記錄을 보지 않았다고는 할수 없다. 그리함에도 不拘하고 眞興王代에 碧骨堤를 築造하였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 金富軾의 史記에 未洽한點이 있어서 적어둔 것이라 認定된다.

그런데 다만 眞興王代라 하였고 正確한 年代가 없음이 遺憾이라 하겠으나 貴重한 記錄이 아닐수 없는 것이며 여기에 한가지 附言할것은 樸翁稗說의 記事가 全的으로 信憑性있는 것으로는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程度의 根據가 있어서 記錄한 것이 아닐까 推測하였다. 新羅眞興王代를 百濟에서 찾아보면 聖王 威德王兩代에 該當하는데 新羅訖解尼師今二一年——百濟比流王二七年——에서 六甲四回 즉 二四〇년에 該當시켜 보면 眞興王三一年——百濟威德王一七年——이 된다. 그리하여 新羅訖解尼師今二二年과 眞興王三一年이 在位年으로 一〇年의 誤差가 있고 百濟比流王二七年과 威德王一七년도 亦是在位年이 一〇年의 誤差가 있으며 더우기 單位數字에 訖解尼師今二一年이 眞興王三一年과 比流王二七년이 威德王一七년이 同時上下王代가 符合되는것은 偶然一致보다도 威德王一七年 百濟記事를——眞興王三一年에 該當시켜서 樸翁稗說에서 收錄한것 같고 三國史記는 四六甲을 올려서 訖解尼師今二一年에 誤入하였는지도 알수없다고 하겠다.

百濟威德王은 泗泚城에 遷都한 聖王의 元子로 即位하자 入陳 入齊 入宇文周 入隋의 使臣을 中國에 派遣하여 諸般文物을 輸入하는 한편 對倭關係도 相當히 活潑하게 움직이었던 英主이며 高齊後主가 使持節都督東靑州諸軍事東靑州刺史를(靑州는 中國地名) 삼을 程度의 活躍相을 알수 있는 人物이다. 이와같이 對外로 隋唐文化를 頻繁히 輸入하였고 對內施政도 飛躍의 國家發展에 注力하여서 經濟的 뒷받침으로 金堤萬頃의 廣域의 農産物이 王都에 들어왔을 것이며 唐津의 소들강문(牛野江門)의 끝없는 平野의 米穀도 泗泚王都에 실려 들어와서 經濟的安定期를 形成하였으리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一九七五年二月二六日—三月二五日 金堤郡主管 碧骨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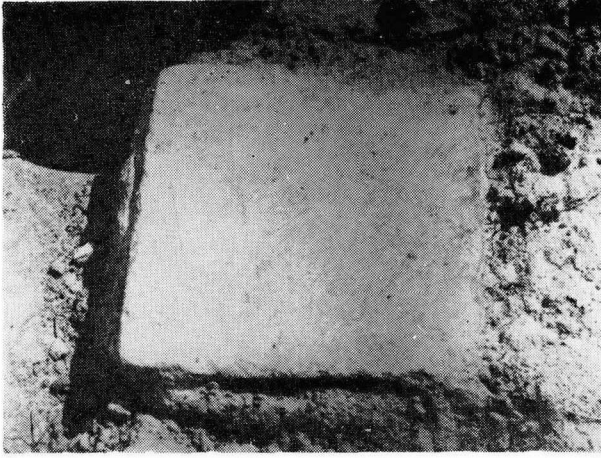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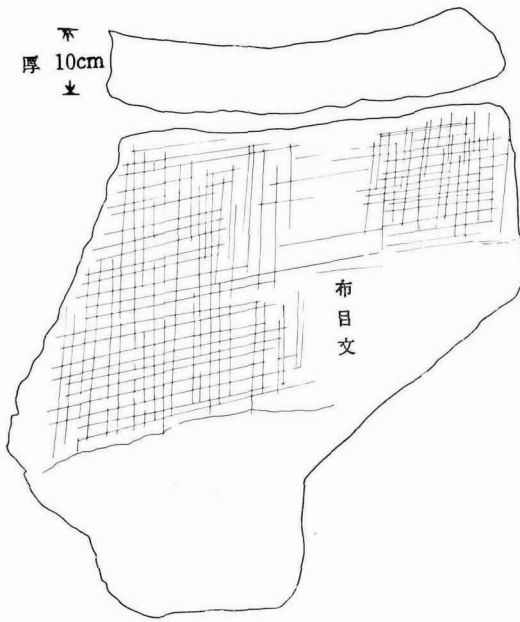


圖 1. 經藏渠外百濟礎石

發掘工事に 參與한 적이 있다. 筆者가 堤防水門五個所附近을 調査한바가 있는데 이 水門의 名稱이 貯水池便에서(右에서 左로) 水餘渠(무네미돌) 長生渠 中心渠 經藏渠 流通渠 五渠가 있고 現在 石造水門은 長生渠와 經藏渠 二水門에만 있으나 中心渠에도 設置하였던 것이 後에 廢棄되어서 石水門이 地上에는 남아있지 않고 옛날 石水門의 基底石材가 地下에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런데 經藏渠의 水門左便(堤防에서)의 水門의 外護岸 地上에서 百濟時代 方形礎石(一邊五二、五cm) 一個(10가 發見되었고 當時 瓦片(女瓦厚一、五cm) 등이 朝鮮朝瓦片和 같이 積石間에서 發見되었다. 治石한 石材가 있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 하겠으나 瓦片이 出土한 것이나 特別히 百濟礎石이 水門의 外護岸地上에서 나온다는 것에는 疑訝心이 없 을 수 없는 것이다. 時代를 莫論하고 堤防의 水門護岸에서 礎石瓦片이 發

見된다는 것에는 木造建 物이 있었다는 證據인대 建物을 세울만한 地面의 與件이 되지 않고 있으며 或은 水門守護直의 建物 이 아닐까도 생각되었으 나 何必 建物이 있었다 면 中心渠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經藏渠水 門에 있었다는 것에는 百濟時代 碧骨堤를 築造 한後 經藏渠에서 멀지않 은 지금 鳴琴山(碧骨堤 南方) 北便附近에 事實 水門直의 家屋이 있었다 가 後代 碧骨堤를 增修 築할때에 人夫들이 破山



經藏渠出土百濟瓦

採土한적에 옛建物址의 土量도 採取하여 堤防修築에 옮겨지는 데서 礎石과 瓦片들이 같이 移動한 것으로 밖에 認定이 가지 않는 것이다. 百濟時代의 方形礎石을 使用한 時期는 오직 泗泚城時代 즉 扶餘地方 에서만 볼수 있는 現狀으로 聖王以後 義慈王時代까지의 年代라 하겠다. 公州地方에서는 아직 方形礎石을 發見한 例가 없다. 그렇다면 앞에서 言及한 櫟翁稗說에 실린 新羅眞興王代 — 百濟威德王代 — 에 碧骨堤가 築造하였다는 說과 方形礎石이 流行하였던 年代가 相通한 것으로 볼수 있 고 또한 百濟時代 築造의 碧骨堤가 처음이 됨을 立證한다고 본다. 다음은 水門名稱에 對해서 말하고자 한다. 第一水門에 水餘 第三水門 에 中心 第五水門에 流通이라고 하는 水餘나 流通은 水流의 뜻을 말한 것이고 中心은 五個水門中 中央에 位置한 中心으로 이亦是 合當한 水門 名稱이라 하겠으나 그러나 第二水門을 長生 第四水門을 經藏이라 하였음

別表

書名	堤長	周長	其他	堤長 m換算	摘要
三國史記 訖解尼師令21年	1,800步		3,600步=10 里 _二 半이 5里	1,963.6m	(1步=6周尺)
三國遺事王座	□□166步	□1726步			水田1470□
東國輿地勝覽 參	60,843尺	77,406步	重修碑引用	11,062.3m	灌溉水田 9,840續 95第
碧骨堤重修碑	60,843尺	77,406步		11,062.3m	?-?-?-? 9840? 95? (太極浦에서 派渠까지)
王朝實錄所築處	7,196尺		堤廣50尺 堤長 3,997.8步	1,308.4m	長生渠~流通渠
文獻備考山川 條와 大東地志	2,600步	80里	5里	1,963.6m	(2,600步는 3,600步로 보고 1 步 3周尺으로 所築)
文獻備考引用 輿地勝覽	10,160步	255里		5,541.8m	(1步=3周尺)
1975年實測	2,721m			2,721m	月昇橋에서 長生渠便 끝까지 (連浦川幅99.2m包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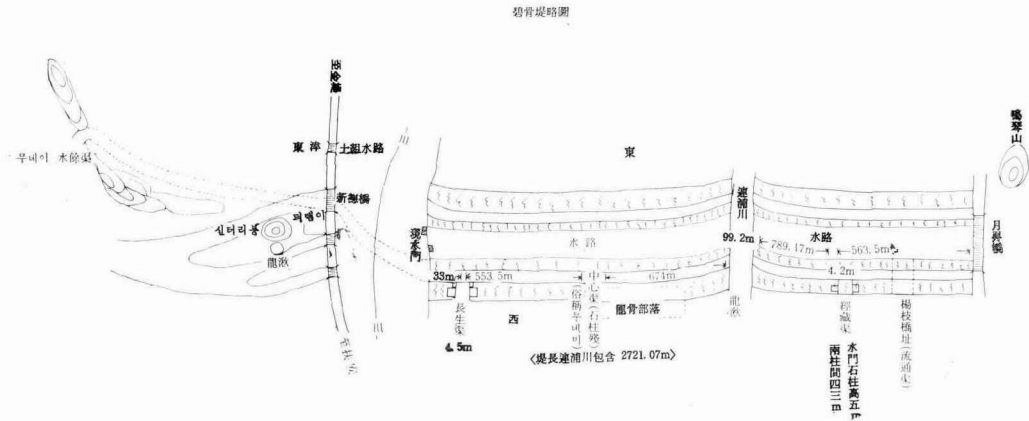
- 尺周尺
- 步三一步六周尺(或은 一步三周尺)
- 1周尺曲尺六寸

은 다른水門名과 異色の 稱號로 생각하여진다. 于先 長生이라는 文句는 老子道德經五九章에 深根固柢 長生久視之道에서 나온 長生으로 보며 經藏은 老子道德經의 理를 담은 經藏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나무뿌리가 깊고 단단하게 서게 되면 오래도록 살수 있다는 말인데 이 碧骨堤도 특정한 堤防으로 오래되도록 貯水池의 堤防으로 남아있으라는 뜻의 長生이며 經藏은 이 長生이란 말을 담은 道德經의 經文眞意가 收藏되었다는 經藏으로 理解할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名稱이 朝鮮朝 太宗時代 碧骨堤를 大대의 修築時에 불여진 것인가 또는 修築以前부터 불려오던 것인가 碧骨堤事蹟碑文에 堤堰의 長과 堤周回를 表示한 그아래에 「開五渠灌溉水田 凡九千八百四十結九負五束古籍所載也라 한것을 보아서 修築後의 名稱이 아니고 前부터 불려오던 稱號인것을 알겠는데 五個水門名稱中 水餘 流通은 修築後의 命名같다 더우기 儒學者는 孔孟의 道以外的 老莊學을 말하는것을 異端視하고 있었음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碧骨堤修築이 統一新羅 高麗 朝鮮朝에 걸쳐서 數次 있었는데 朝鮮朝에서 名稱을 붙이지 않았다면 統一新羅 高麗時代의 稱號라 할가 亦是 이時代에 大대의 修築이 加하지 못하고 어느部分의 補修에 不過하여서 修築時 稱號가 아니라면 碧骨堤를 처음 築造하고 나서 水門名稱을 붙였다는 것이 妥當하여서 百濟威德王 時代命名으로 보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百濟時代에 老子道德經이 있었던가 疑問되는데 西紀三七五年(近仇首王元年)에 近仇首王이 太子時 高句麗를 進擊할적에 將軍莫古解가 以上進擊을 못하게 諫하던 三國史記 百濟本記에 보면

嘗聞道家之言知足不辱知止不殆

일찌기 道家의 말을 들으면 足한것을 알면 辱되지 않고 止할줄 안다면 危殆하지 않다는 文句인데 이 句節은 老子道德經第四四章에 나오는 句節인데 百濟國에 道德經이 上流社會에서는 일찍부터 있었었다는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威德王代에도 덕덕히 道德經이 傳來되었던것을 알게되며 碧骨堤水門도 그와 같은 命名을 한것이라 推定하고 싶은 것이다

東津水利組合이 現在 碧骨堤를 水路用地로 使用하고 있는데 經藏渠와



碧骨堤畧圖(堤長連浦川包含)

中心渠地의 中間地에는 連浦川(幅九九、二m)이 흐르고 있는데 이連浦川이 前日에도 成川된것을 利用하였는지는 未詳이다 碧骨堤를 當初 築堤할 때에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것은 中心渠地를 龍骨部落에서 무네미(水越)라고 부르는것을 보아서 中年에 中心渠가 廢棄되면서 連浦川이 된듯하다.

한편 第五水門 流通渠地는 月昇橋(扶梁面月昇里)에서 約二〇〇m 地點堤防에 있었던 것 같고 兼해서 揚枝橋가 이流通渠上에 架設하였던 것을 알겠다. 部落古老談에 의하면 楊枝다리 밑에서 물고기를 잡았다하며 橋幅이 約三m에 橋長이 約二〇m 程度라 하는데 이地點 碧骨堤下에는 수명 뱀이 가 있는곳이 바로 그곳이라 한다.

대체로 碧骨堤의 內外

地形을 보아서 最後 五水門이 完備되었던 當時에는 灌漑流水水門으로 使用할수 있는 水門은 長生渠 中心渠 經落渠 三個石門이 있었고 其他 第一水餘渠와 第五流通渠는 碧骨堤에 滿水時 自然流出으로 만들어진 水渠라고 보아진다. 그것은 水餘渠地位置가 現在 碧骨堤北端에서 二km 北方에 있고 碧骨堤 現高를 二m 以上 高를 높여 쌓지 않고서는 流出이 어려울만치 高位에 있다. 前日의 水路와 水門地는 지금도 確然히 認識할수 있는 形迹을 窺아 볼수있고 水餘渠地에서는 水門內側으로 논바닥에 지금도 板石三、四個가 박혀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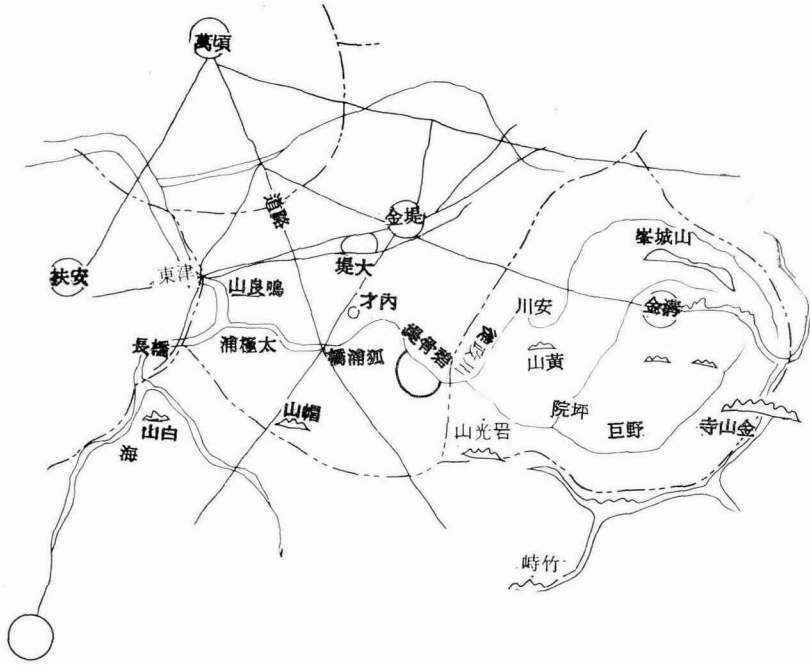
最初 碧骨堤를 經營하였던 時代에는 長生渠 中心渠(무네미) 經藏渠의 堤防에서 中心渠가 무네미 구실을 하였고 後代에 내려오며 修築 또는 增築을 加하는대서 무네미 즉 中心渠도 長生渠 中心渠 經藏渠가 灌漑水門三個所에 水餘渠와 流通渠가 滿水의 自然 流出水門이 이루어지며 流通渠에는 堤防出入의 架橋인 楊枝橋도 設置된 것으로 推定할수있는 地形과 무네미(中心渠)란 地名이라 하겠다.

碧骨堤의 築堤距里

碧骨堤 築堤距里는 別表 書名欄에서 볼수있는 文獻에 그 築堤距里를 堤長欄과 같이 各各 다른 數値를 나타내고 있다.

別表에서 步는 一步 三周尺 或은 六周尺으로 보았고 一周尺은 曲尺 六尺에 該當 計算하여 m로 換算하여진 것이다.

一步 三周尺은 進行 一步 ①를 말하며 一步 六周尺은 進行 左右二步를 말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距里를 計算할때 普通 六周尺 一步로 三六〇步가 一里 三、六〇〇步가 十里로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碧骨堤의 경우 文獻備考山川條에서 堤長이 二、六〇〇(三、六〇〇)의 誤記)步 文獻備考引用 輿地勝覽堤長一〇、一六〇步는 거리가는 一步로 計算된것을 알았고 碧骨堤重修碑의 堤長六〇、八四三尺 王朝實錄所築處堤長七一九六尺도 一步 三周尺으로 하여 步를 尺으로 換算記錄하였음을 알게 된다. 同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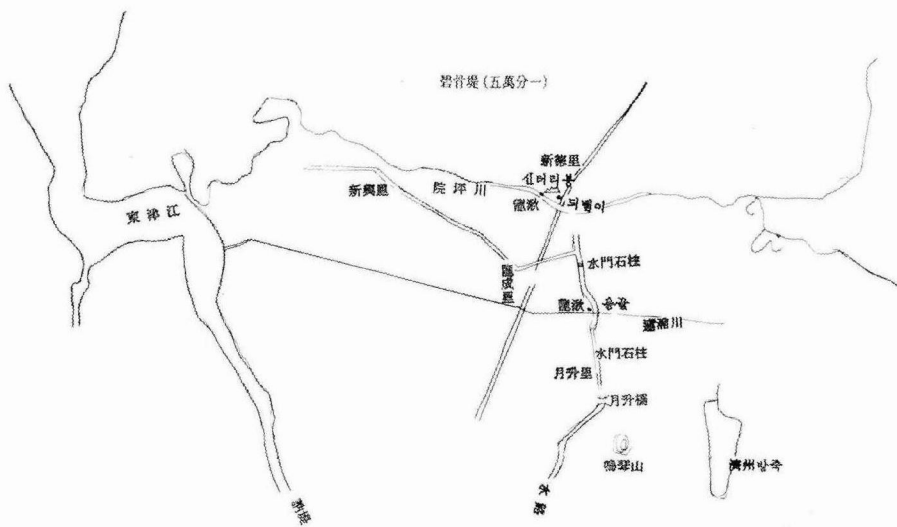
金堤碧骨堤(大東輿地圖)

한 堤長을 사람에 따라서 差異가 있음에는 一定한 長尺이 없었고 同一 路線을 재었다면 어느 사람이 計算하더라도 同一한 數值가 나올 것이지만 사람의 步幅이 다르고 距里路線이 多少달라지는 데서 數值도 달라졌다 고 보아진다.

西紀一九七五年에 碧骨堤水門을 發掘調査때 堤防길이를 實測한 것을 別表 碧骨堤畧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堤上을 實測한 것이 一、七二一 m 이다. 現在水路로 因하여 堤防幅이 兩分된 것은 다른 곳에서 土量을 運搬한 것이 아니고 本來의 堤防을 東津水組에서 兩分하여 水路를 開拓한 것 이라 한다. 그런데 堤長이 二、七二 m 는 四 km 十里에서 생각하면 五里 가 若干上回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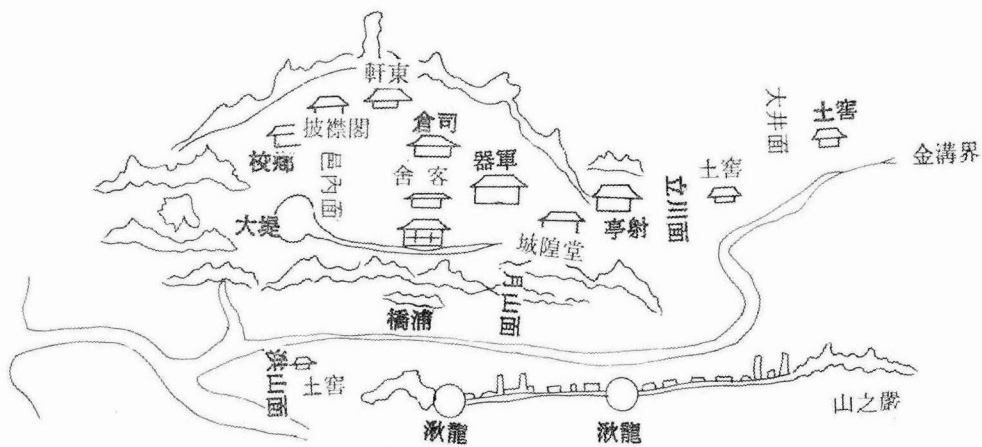
한편 訖解尼師今二二年的 堤長一八〇〇步는 三六〇〇步十里의 半으로 五里를 記錄한 것이고 1 m 로 보면 一、九六三、六 m 거리 二 km 에 該當되며 文獻備考山川條의 二六〇〇步는 한발거름을 基準한 步數로 亦是五里로 보았고(二六〇〇步는 三、六〇〇步의 誤記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王朝實錄의 所築處를 보았던 七、一九六尺은 步(二步三周尺)를 尺으로 고친 것으로 보았고 缺壞된 碧骨堤의 補修堤長을 表示한 듯 하다.

文獻備考引用輿地勝覽의 一〇一六步는 長生渠北約二 km 의 水餘渠에서 碧骨堤南端까지의 總堤長을 增補修한 堤防길이로 보아서 無理가 없는 五五四一·八 m 이며 碧骨堤重修碑의 六〇八四三尺은 步(二步三周尺)를 尺으로 記錄한 것 같은데 이 堤長을 步로 다시 換算한다면 二〇、二八一 步이어서 前記 一〇一六〇步의 倍가 되는 數值인데 이 築堤길이는 아마도 東津江中流에서 院坪川과 納堤에서 흐르는 물이 合流하는 鳴良山 앞 太極浦까지의 길이로 보아진다. 現地에서 太極浦位置를 찾아 보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重修碑에 先築堤於大極浦潮波畜激處以殺其勢로 보아서 碧骨堤를 修築할 때의 總堤長은 北方 水餘渠를 거쳐 太極浦까지를 計算한 距里일 것이다. 六〇、八四三尺의 長長大堤——堤의 下廣七〇尺 上廣三〇尺 高一七尺——를 築土하자면 動員된 人員——萬名——도 問題——宿食——거리와 土量採取場所도 큰 問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작



碧骨堤(五才分一)

碧骨堤(輿地圖書)



碧骨堤(輿地圖書)

은 산을 헐어다가 옮기는 作業과 같은 것인데 二四日——九月甲寅에서 十月丁丑——間에 完工하였다 한다. 여기에서 莫大한 土量을 과연 어디에서 採土하였던가 지금 碧骨堤南方에는 鳴琴山이 있고 碧骨堤 水餘渠가 있던 곳은 밋밋한 平原같은 산줄기가 北에서 南으로 뻗어 있어서 碧骨堤 築堤高 보다도 相當히 높은 土山이다. 이러한 地形上에 碧骨堤를 修築할 土量은 不得已 南은 鳴琴山北麓에서 採土하여서 築堤하며 北으로 進行할 것이고 水餘渠便에서는 水路를 掘土한 土量으로 北에서 南으로 埋立하며 築堤하여 兩便에서 作業을 進行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碧骨堤 土色이 南은 鳴琴山土色과 같고 北은 水餘渠附近의 土色과 同一한 데서 그리 생각되며 地形上으로도 그렇기 하지 않을 수 없는 位置이다.

碧骨堤 現況

碧骨堤의 水源은 別圖 大東輿地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갈래 물이 堤內에서 合流하는데 두갈래 물줄기는 金溝母岳山 南과 北에서 흐르고 한 줄기는 泰仁象頭山에서 흘러서 세물줄기가 合하여 흐르다가 東津江中流에서 다시 古阜訥堤물과 合流하고 東津江口로 흐르는데 이 圖面에는 碧骨堤가 마치 주머니와 같이 堤防이 되어 있으나 金堤郡誌(輿地圖書)의 圖面에는 嚴之山과 無名山(必는 신터리봉으로 現在 두龍湫中 北側龍湫가 있는 산이다)을 連結하여 堤防이 築堤되었다. 이 地圖를 보는데 堤防左右 端에 石柱門을 表示하였는데 左側이 長生渠 右側이 經藏渠를 表示한 것 같으며 堤防中間地點의 龍湫는 現在 龍骨部落 連浦川邊에 있는 龍湫같으며 龍骨部落의 中心渠자리는 全然表示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輿地圖書의 金渠郡圖는 훨씬 年代가 내려와서의 圖面같다. 다시 五萬分之一 碧骨堤를 본즉 亦是 左右側 水門石柱가 表示되며 院坪川이 長生渠北쪽을 흐르고 碧骨堤中間을 흐르는 連浦川은 近來에 만든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龍成里部落北便에 있는 신터리峯(13)과 되밭(14)이 水田이며 月昇橋에서 보이는 南方山이 鳴琴山이고 이 山東方에는 濟州방축(15)이라는 水田이 있는 것이다.

一、長生渠와 經藏渠形態

長生渠와 經藏渠의 水門構造 形態는 大同小異하였다. 四m餘의 流出口 左右에는 五m餘의 方口柱를 세웠는데 流水外便에는 左右石柱에 七m 可量의 홈이 上下로 파졌고 流水되는 돌문턱이 左右石柱間을 걸쳐 막아 졌다 流水底面은 平面을 닮은 花崗石으로 地面을 若干傾斜지게 춤춤히 깔았는데 地面에 같은 石面이 地面을 채 덮어 깔지 못한 곳은 잔돌로 石隙을 채우고 水鐵을 녹인물로 굳혀졌다. 이 流水의 左右側 堤防外保岸壁은 治石한 巨石을 두켜로 쌓아 流水에서 堤防이 被害되지 않도록 鞏固히 垂直으로 約一、三m의 高로 올려 쌓여졌다. 이 兩石壁들은 重修碑文에 每渠門兩傍에 鍊石作礎上施槐板作橋以通往來한 곳으로 보인다. 그리고 方柱上部에는 長生渠에 있어서는 兩石柱頭가 많이 破損되어서 前日製作의 形態를 分明히 識別하기 어려우나 지금 石柱頭는 兩柱間을 걸쳐 놓은 두꺼운 木板의 축이 되직하였고 石柱(水門使除外)三면에 大小孔이 있음을 보아서 厚木板이 動搖하지 못하도록 固定시키었던 支柱의 形痕이 아닌가 思料되었다.

지금 長生渠水門의 流水口는 花崗石으로 막아졌는데 築石솜씨가 三角石으로 쌓고 시멘트로 間地를 발라서 一見 튼튼한 感覺을 준다고는 하겠으나 美觀上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느낌을 준다고는 생각되지 않았 다. 또한 經藏渠水門의 兩石柱에도 流水面쪽을 向해서 七cm홈이 파져있는 것은 長生渠石柱와 同一한 形態이며 流水路面과 流水路의 左右保岸石壁 亦是 같은 모양으로 大石의 二層築造를 重直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兩石柱의 柱頭 모양이 長生渠石柱와는 달리 水口쪽을 除外한 三면에 兩石柱를 걸쳐 놓은 橫木을 끼우기 위하여 ㄷ字形 홈이 石柱上部 三方에 파져 있는데 橫木크기가 一邊三〇cm 以上の 長木을 石柱左右上에 設置한 듯 하다 이와 같이 石柱上部에 設置한 理由에는 兩石柱를 固定시키고 또는



圖 3 長生渠石柱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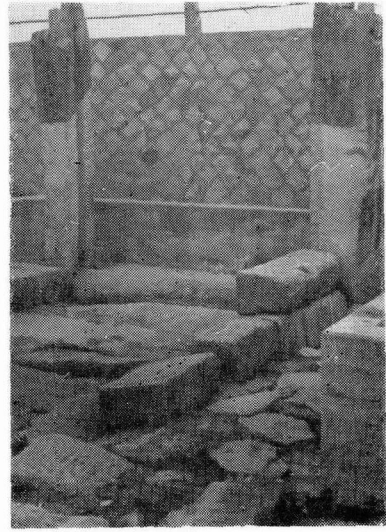


圖 2 藏經石柱

灌漑水を 開閉할 設에 돌출을 上下하는 水門板木을 設置하는 一助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하겠다.

本是 碧骨堤高는 現堤高보다도 높은 築堤가 되지 않는다면 水餘渠로 滿水時에 自然히 流下할수 없게 되는 地形上의 見地에서 볼적에 水餘渠 位置가 堤高보다 高位에있음에서다. 지금까지의 말은 殘存한 水門外側 의 兩處石造關係를 考察한것이다. 그러나 碧骨堤水門으로 말하면 堤內 貯水를 流出하기爲한 工作物인데 水門內側의 構造狀況은 全然 불수 없 었던 것이 遺憾이었다. 東津水組에서 堤防을 水路로 改編할때에 目觀한 사람의 傳言을 들어보면 堤內水門의 모양은 吐水口가 八字形으로 吐口 를 石造하였더라고 한다. 생각하건대 流出水量이 一時에 吐水하자면 水 門左右護壁이 破損할것을 考慮하여 八字形 水口를 만들어서 一時에 激 流을 防止하는 데서 八字形 吐水口가 만들어진것이 아닐까聯想되었다

그리고 長生渠의 左側堤防의 土層을 보기爲하여 掘土하여 내려가니 最下堤底에 原土層으로 불수있는 地層은 갈대(芦) 雜草等이 腐蝕되어서 검은 흙으로 變하였는데 아직도 植物類를 判別할수 있는 炭化物 처럼된 當時의 池沼植物인데 그것이 碧骨堤始築時의 것인가 增長堤防時의 것인 가는 未詳이었다.

碧骨堤의 補修와 廢棄

이 堤堰이 築造된 後로 屢次의 修補와 増築이 거듭되면서 堤下의 金堤 萬頃의 水源을 確保할수 있었던 巨大한 碧骨堤는 穀倉의 구실을 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堤下平野를 外夜味들(외배미들)이라고 불릴만치 平原廣野와 짓줄이 되는 貯水堤防은 時代에 따라서 百姓의 배를 불리려 는 聖代에는 増築과 補修를 하였을 것이고 한편 國王自身이나 權臣의 弄奸에서 數萬의 人力이 投入된것을 無視하고 一朝에 巨堤를 缺壞하키 도 하였었다. 現存한 碧骨堤가 水路의 堤防이 되고 一部 堤防이 缺失되 어서 前貌를 잘 把握할수는 없으며 五里長堤에 巨大한 堤築은 오늘날

덤에도 비할수있는 先人들의 피와 땀이요 熱과 誠의 結晶體라고나 하겠
다.

第一回の 増築工事が 西紀七九〇年(元聖王六年)正月로써 全州等 七州
人으로 興役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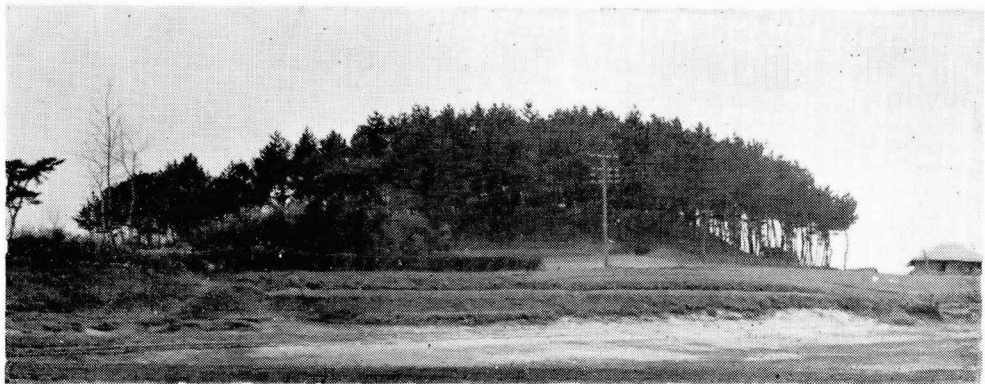
元聖王六年春正月以宗基爲侍中増築碧骨堤徵全州等七州人興役

그리고 西紀八五一年(文聖王一三年)에 淸海鎭에 있던 多數人員을 碧
骨部に 移住시키었다는 것도 碧骨堤의 平野를 보고 計劃하였으리라고
推定된다.

第二回修築은 高麗顯宗時代라고 碧骨堤重修碑文에서 볼수있는데 高麗
史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또한 高麗仁宗二一年에도 増修도 되었으나 이
年代에 찾아보았지만 索出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事實이라면 第三回에
該當한 修築이고 高麗史節要에 西紀一一四六年(仁宗二四年)에는 新築한
碧骨堤를 巫言에 의해서

遣內侍奉說決金堤郡新築碧骨池堰從巫言也

第四回の 大의 増築과 修補는 西紀一四一五年(朝鮮太宗一五年)으로
比較的 修補頭末이 詳細하다 하겠다. 西紀一四〇八年(太宗八年) 九月에
金堤郡 碧骨堤의 堤下地廣이 넓고 肥沃하며 옛적 堤防이 自然山같아서
옛날과 같이 堤防修築을 하고 寺社奴婢로 屯田하여 國用에 補充하자는
全羅道兵馬都節制使姜思德의 發議提請에서 始作되었는데 西紀一四一五
年(太宗十五年) 八月에 다시 全羅道觀察使朴翊의 碧骨堤狀況과 時急性
을 要한다는 上啓에서 修築이 決定되었다. 朴翊의 啓에 城郭은 外侮를
守禦하는것 堤防은 貯水로 灌溉를 하여 旱害를 救하는 良策이다. 城郭
修築도 必要한 急務이지만 道內堤堰이 다 이미 修築되고 오직 金堤碧骨
堤가 未修築되어서 一次 所築處를 가보니 修築할곳이 長七一九六尺에
廣五〇尺 渠門四處中에 三處에는 石柱가 서있고 堤內의 貯水處가 一息
(三十里)쯤되고 堤下의 땅이 遼廣하여서 堤內보다도 三倍나 된다. 지금
은 方農時로 農隙을 타서 다시 報告하겠으되 城柵修築은 아직 停止하고
먼저 碧骨堤 經營을 하자는 데서 修補命이 下達된 것이다.



산터리

其後 同年十月에 朴翊이 築堤
事由를 報告하되 碧骨堤의 水門
修築에 石工三名을 보내주면 本
道 各官軍을 聚合하고서 今月二
十日에 開基始築하겠다고 하였다
이工事が 完工後 西紀一四一八年
(太宗十八年)正月에 廣州牧使禹
希烈의 上書에는 三年前에 修築
한 堤防에 連筒(灌溉小水路)이
不實한 곳이 數處가 있어서 田七
十頃이 未開墾地가 되니 前에 造
築하던 사람을 보내여서 水口와
決毀處를 堅築하는게 어떠냐는
말이다¹⁶.

다음 西紀一四二〇年(世宗二年
九月에 全羅道觀察使가 큰風雨로
해서 碧骨堤가 缺損되어 堤下田
二〇九八結의 耕作이 不能하다는
報告가 政府에 提出되며 다음해
西紀一四二二년에는 金堤郡人 朴
礎가 上書하기를 乙未年(西紀一
四二一年)에 郡事金倣이 堤防修
築工事를 監督하여 二萬人으로
二十餘日을 걸려서 完工하니 堤
下地에서 公田의 收穫이 千斛나
되어서 軍과 民의 食糧이 足하였
다. 近者 執使者가 堂堂한 堤防
을 潰決하면 罪나 받을까 하여

動民四萬餘人하여서 木柵을 五重으로 한다하니 豐年을 기다려 修築하기를 敎命하여이다. 비가 올때는 開渠하고 가물때는 防塞하는게 어떠한지 堤防의 完固와 流水의 利害는 監水者에 달려있으며 그 立石紀蹟은 聖代의 務農을 千古에 昭示한것이다. 한해 雨水에 廢棄한다는 것은 不可하며 堤防形態가 上窄하나 普通길같고 堤下가 넓어서 堤防위로 물이 넘지 않으면 潰岸의 害가 없다. 지금 不幸히 雨潰된것은 堤防이 견고 하지 않은게 아니고 監守者의 不察에 달려있다. 가별게 생각하고 數萬의 百姓을 動員하여 舊堤아래 다시 築堤한다면 廣蕩한 들이 들어가고 保安縣의 南郊 山野를 파다가 水渠를 쌓고 西쪽 黔浦로 바다에 通하게 하여 潰決의 患을 免하려하니 알수 없는 일이다. 지금 堤防이 터진것을 막는데는 七八百名으로 二十日工役에 不過하다. 臣이 受命하고 南來하여보니 碧骨堤를 禁毀하는게 오늘날의 急務이다. 殿下께서 事實을 採擇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豐年을 기다려 更築을 하여지어다 하였으며

다시 西紀一四二八年(世宗一〇年)閏四月에는 承政院에 傳旨하되 水災를 防救하고 水路를 壅塞한곳을 開決하는 便否를 調査해서 올리라는 것이었다(以上王朝實錄). 다음은 金石文으로 西紀一四一五年에 大의 것으로 碧骨堤를 修補한 後에 그 顛末을 적은 金堤郡碧骨堤碑銘과 西紀一六八〇年(肅宗六年)에 建立한 傳敎碑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터리峯에 세워진 「金堤郡碧骨堤碑銘」(17)은 史蹟第一一號로 國家에서 指定하였으며 그 碑文을 아래에 적어본다.

金堤郡碧骨堤碑銘(扶梁面龍成里)(碑前面)

郡之南十五里許, 有大堤, 名曰碧骨, 古人舉金堤古名, 因以爲號, 郡亦因是堤之築, 改今名焉. 堤之長六萬八千四百三十三尺, 堤內周回七萬七千四百六步, 開五渠灌漑水田, 凡九千八百四十結九負五束, 古籍所載也, 其第一曰水餘渠, 勝一水流至萬頃縣之南, 第二曰長生渠, 勝水流至萬頃縣之西, 潤富之源第三曰中心渠, 勝一水至古阜之北, 扶寧之東, 第四曰經藏渠, 第五曰流通渠, 并勝一水流, 入仁義縣西, 五渠所灌, 土皆沃饒是, 堤也. 自新羅百濟, 民護其利, 至高麗顯宗時修完, 舊制, 及仁宗二十一年癸亥又

增修復, 而終至廢棄, 識者恨之天啓我

朝聖君誕, 作勳精圖, 以致時雍, 於是分命大臣, 巡視四方, 備堤防通灌漑乙未春命判尙州李公發, 爲都按撫使, 李公始至碧骨, 將欲修之, 以事功煩, 劇未就, 都觀察黜陟使咸陽朴公習, 與經歷權君專, 敬善官朴君熙中偕臨是堤究覆事功難易, 具奏本末遂蒙允可, 發各郡民丁摠一萬名, 幹事者三百人, 使沃溝縣兵馬使金君訓, 知金堤郡事金君倣, 監督之, 起功於是年九月甲寅, 告訖於十月丁丑, 堤北有大極浦, 潮波奮激, 南有楊枝橋, 畜水洩下其改築用, 力自古爲難, 今先築堤於大極浦, 潮波奮激處, 以殺其勢, 次豎連抱之木於楊枝橋, 畜水洩下處, 作柱架樑爲, 木柵五隔填之, 以土, 又其堤防殘圯處, 皆登土填平, 堤內外栽柳五行, 以固基礎之, 下廣七十尺上廣三十尺, 高十七尺, 渠門望若邱壟矣, 且其長生中心經藏三渠門, 仍豎石柱, 水餘流通二渠門劉石作礎, 立槐柱, 又當兩傍石柱柱陷處, 橫設槐板, 內外着連環鐵索, 以爲舉板開流之用, 渠門廣皆十三尺, 石柱高十五尺, 入地五尺, 下面石縫鑄鐵錮之, 仍修內面遮水岸, 水餘流通二渠門, 皆非波流所, 激水若汎濫, 於此流洩不得遮水岸, 每渠門兩傍, 鍊石作礎, 上施槐板作橋, 以通往來, 此其大略也

皇明永樂十三年乙未十月二十九日立

(碑後面)

嘉靖大夫全羅道都觀察黜陟使兼口姜集轉輸勸農官學穆調刑獄兵馬公事朴習

朝奉大夫全羅道都觀察黜陟使經歷權軫

全州南原差官奉到大夫直藝文館兼僉知承文院事朴熙中

差使員爲因夫沃溝鎮兵馬使知沃溝縣事兼勸農官學事金訓

差使員夫知金堤郡事兼勸農兵馬鍊州使金倣

碑銘撰州通訓大夫知海珍郡事全羅道左道水軍朴

篆額書主員郭

刻字僧忍 省悟 都色 金堤郡戶長金

堤堰都監 郡接前中直大夫司鎮

堤堰副監 將□□憤□前□□前□將林□吉 將李中原前散員尹□□前
散□□德□□生員 學生李陽秀李範徐□雍俊柳□自堤趙愈□專施主
□致俞柳□□金玉□□李□□

道內□□□一□曾百名 碑頭三日□□□金水□典農寺奴手左其邊□小
斤金豆□□小斤於□伊化主句龍古未□

金堤郡爲戶長本愼教 文記□李□□都□訓本開 產主前恭員本普印 學生
朴仁朴思□□□泰□□功備□金□□□形□

石手
이 碑文의 內容을 살펴보면 築堤의 길이 六〇八四三尺에 堤周回 七七四

六〇步에다가 灌溉水田이 九八四〇結九負五束을 明示하였고 다음에는
五個水門名이 있는데 그水門을 통해서 흘러가는 地名이 있다.

一、水餘渠는 萬頃縣南

二、長生渠는 萬頃縣西

三、中心渠는 古阜北과 扶寧東

四、經藏渠는 仁義縣西

五、流通渠는

다음은 簡畧한 增修와 廢築時代를 記錄한後에 西紀一四一五年(太宗一

五年)에 增補修에 參與했던 人名이 李發、朴習 權專 朴熙中等이 보이며
築堤人夫一萬名과 幹事者三〇〇八 沃溝鑄兵馬使金訓 金堤郡事金倣等이

列學하였고 築堤期間으로 九月甲寅에서 一〇月下丑까지 二四日이 걸린
것과 太極浦와 揚枝橋의 工作物設置며 堤防의 規模에 基堤下廣 七〇尺

上廣三〇尺 高一七尺을 적었고 長生 中心 經藏等 舊石柱를 補修 水餘
流通의 두 渠門에는 槐柱를 세웠다는 것과 水門兩房에 通行作橋를 設置
하였다는 것 또는 石柱門에는 水門을 만들었는데 廣이 一三尺 石柱高地
上一五尺에 地下로 五尺을 묻었으며 水流面을 鎔鐵로 굳혔다는 것이 그
大略이다. 碑陰에는 關係官員名이 列學하였고 特別 碑銘撰者 朴□篆額
靑者 郭□刻字僧에 忍□과 省吾二人 堤堰都監과 副監이며 石手名까지도
記錄하여 있다. 그러나 現在刻字가 磨滅되어서 判讀이 不可能한곳이 한

두곳이 아니지만 이 碑石 亦是 「崇視紀元後甲子八月日」 「朴習十三世孫尙
和」 「礎十四世孫秀大 重建」으로 보아서 西紀一六八四年(肅宗一〇年)에
建立을 알겠다.

다음은 西紀一六八〇年(肅宗六年)에 建立한 傳教碑이다. 아래에 全
文을 적어본다.

傳教碑(鳳山面梧井里)
(碑前面)

傳曰近聞各邑或有收稅及沘堰等處大爲生民切骨之瘼而自稱官差司監者推
堤平民恣行「虐貪是司曰國有法綱乎庚戌以後所收稅所築堰處自然營一

查問民願所同然處外修報」籌司一併革羅後亦以此意曉諭坊曲俾斷橫濫害
民之弊」蓋沘堰之收稅先占形便允從庶願惟利所在民歸之猶水就下其害不
祛衆佛之成城彌堅」國典之所係輿情之莫遏顧何如哉本邑三面處於碧堤漚

流之所一坪延袤三邑交錯地勢既「窪汚浦橋且橫距每值渠漲之節未免沈墊
之患苟能深潛(浦水撥斯浦則似或爲一勺之漚而不過)斯是尺寸之利遽自年

來稱以司監不遵面里之議爲充溪壑之欲浦雖略穿橋則依「舊匪令之水害自
在從某至某之地稅勤執於是焉怨聲狼藉弊源鱗生添在字收之任未」可以越

視故所謂司監之類申今而齊退矣何幸庚申九月初三日洪惟我」
聖上階前萬里之明見天日至照於覆盆除下十行之渙音時雨大行於遐濼凡厥

踰高踏厚者孰不踏舞於煦濡之中也 茲擎奉」
聖上率籲衆感面而布諭手成節日勤之白石豎之碧野罔所以歷千記不泯之計

而若有日後之更犯寔是化外之難悛然則民告于官官報于營而轉徵籌司以法
從事繩愆糾謬「豈非對揚我」

聖上軫恤盛德之萬一也哉
崇觀紀元後庚申十月初一日

(碑陰)
知縣臣本純翼奉教謹跋

都有司臣崔祥萬

一北有司臣崔昌鶴

下西有司臣崔衡俊
草處有司臣金敬義
監官臣張基鄴

이 碑文은 肅宗大王의 教旨인 碧骨堤下의 沃稅를 司監을 假稱하고 徵收함은 不當하니 이 뜻은 坊坊曲曲에 알리지 하라는 要旨을 적고 當時 金堤郡守 李純翼이 그 聖旨를 一般에게 曉諭하는 內容이다. 傳敎碑가 세워진 것은 오직 碧骨堤에서만 볼 수 있고 當時 耽官들의 一面을 엿볼 수 있으며 社會相을 짐작하게 되는 것이다. 別途로 西紀一九六七年에 金庠基撰의 碧骨堤史蹟碑가 碧骨堤의 長生渠 右側에 建立되어서 그 存在를 알림에 그치고 碑文은 畧한다.

一 合德의 碧骨池(唐津郡合德面)

東國輿地勝覽 沔川郡山川條를 보면 碧骨池라는 池沼가 註에 「在郡東이라 하였고 大東輿地圖를 보면 沔川郡의 東便二十里許에 合德池가 있을 뿐이며 文獻備考(輿地 九) 洪州條 合德池에 對하여서 「在合德癡縣 堤長三百步 周可二十里」라는 註가 붙고 다음 原文에 「灌溉甚博 數郡蒙其利」 灌溉하는 面積이 極히 넓어서 數郡이 그 利를 받는다는 것이다.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合德池가 合德縣의 癡縣이 되어서는 洪州 지금 洪城에 屬하기도 하였고 本是는 沔川郡의 一部地域이었던 것을 알겠다. 또한 築堤長이 三百步에 堤防周圍가 二十里라 하였으니 그 貯水面이 廣大하였던 것과 그 蒙利面積도 相當한 地域에 灌溉한 것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實地 現場을 踏查하여 보면 禮唐土組가 開設되기 前에 이 合德池를 管理하던 事務所職員의 말과 保管文書記錄은 다음과 같다(一九五九年 忠南道誌資料調査時)

- 一、貯水面 一〇三町步
- 二、堤防延長 九七四間 一一七七一 m

三、周 八 km
四、蒙利面積 七二六町步

五、產米 數十萬石
六、每年 陰七月辰日에 堤堰祭를 舉行
(以上事務所調査)

其他 民間에서 傳하는 말은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一、甄萱이 步兵九〇〇〇名과 軍馬六〇〇〇頭로 農事를 經營하고 한 陣 軍士를 訓練하던 合德池이었는데 이 合德池는 軍馬의 飲用水를 兼하였다 한다.

二、龍耕(용가리)이라 하여 冬節 結水期에 合德池中間이 갈라지면 豊年이 들고 池邊이 갈라지면 凶年이 든다고 한다.

三、甄萱이 王建太祖와 決戰을 牙山 桐林山 彌勒寺에서 벌여졌을 때에 王建이 甄萱軍에게 包圍되었을 때이다. 王建의 將軍 申壯節公(崇謙)이 王建의 일흔과 恰似함에서 申壯節公이 假降伏을 할 적에 王建衣服을 빌어 입고 甄萱에게 오는 틈을 타서 王建은 單身으로 避身하여 갔다. 이當時에 한나루(安城川)가 되기 前임으로 그한나루가 흐르는 方向으로 逃避하였다 한다(이 이야기는 公山 桐藪의 決戰을 말한 것 같다. 唐津——禮山行 自動車中 行客談)

위의 水組事務所職員의 이야기와 車中行客談을 드른後 合德池 現場을 살펴보면 池形은 西便山麓을 依據하고 南東方에 堤防을 築造하였는데 堤防의 形態가 波狀같이 自然의 屈曲을 이루었고 堤防에는 三個水門이 設置되었으며 西便山(城東里) 머리에는 土城이 둘러있다. 百濟時代 土城으로 認定되었는데 山 이름이 테메山이라 하니. 山머리를 테두른 土城에서 指名된 山名 같다. 筆者가 同地를 探訪했을 적에는 合德池 中央에 鳥嶼가 있어서 물어보니 西紀一九三八年에 日本人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事務所附近에는 合德池 修築碑가 서 있는데 「嘉慶五年庚申春立」이라는 碑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西紀一八〇〇年(朝鮮 正宗二四年) 牧使 金履鎬가 蓮堤를 重修한 碑 19이며 其後에 御史 金有淵이 恩錢을 喜擲한 것

洪州牧使洪亮漢이 五郡의 軍丁으로 修築한 것이며 西紀一九一三年日政時 金喆鎬、俞鎮相、張斗植、金鐘勳等이 共同出資 三萬圓으로 修築한 碑들이다. 八·一五祖國 解放까지도 合德池에는 滿池蓮荷가 되었던 것같으나. 解放이 되자 人心이 突變하여서 蓮根을 다 採取하고 이름만이 合德蓮池라는 虛名만 傳하며 이蓮池는 合德八景의 一을 차지 하였던 合德의 名所임을 알겠다.

合德八景

一、荷湖落鳩 二、龍淵魚躍 三、牛豬秧歌 四、三湖漁火 五、赤壁歸帆 六、道高曉月 七、伽伽落照 八、華岩暮鐘

上記荷湖蓮池는 合德池를 牛豬秧歌는 소들강문(牛野江門)을 말한 것인데 소들강문은 唐津에서는 首位로 볼수 있는 平野이며 따라서 忠南의 廣原이다.

合德池에 對한 徐四佳(居正)의 詩는 後百濟 甄萱과 關係되는 것으로 注目된다.

大勢須憑鷓鴣觀 鴨鷄功業誓河山
秋風一爲甄郎晒 怒髮無端欲豎冠

上記 口傳하는 甄萱과 王建의 戰地라한것과 徐四佳의 漢詩는 合德池가 이미 當時以前에 있었다고 推定이 가는 것이며 소들강문의 大平野를 끼고있는 合德池는 마치 金堤의 碧骨堤가 金堤萬頃의 無邊大野를 안고 있듯 米穀生産이 많은 平野에 碧骨이라는 名稱을 부쳐서 灌溉池 이름은 부쳤던 百濟時代의 池沼임을 聯想하겠고 碧骨 그自體가 벼골 稻郡의 오래된 言語인것을 알게되는 同時에 稻穀을 百濟에서는 벼 新羅에서는 나락이라고 號稱한것을 알게된다.

合德이란 郡名은 合德池에서 緣由된 名稱으로 생각된다. 百濟時代의 碧骨池가 統一新羅 高麗 朝鮮朝에 오면서 數次의 修築이 있었을 것을 생각할때 中間에 數萬壯丁의 合心德積을 상징하는 合德에서 改名되었으며 蓮根을 심고 玩賞의 景觀을 더하였을 적에 碧骨池 이름은 사라지고 合德蓮池로 變名되었으리라 推測되는 것이다.

碧骨池(合德池)의 築造年代推定

碧骨池의 碧骨이 稻郷이라는 벼골임을 金堤를 百濟時代에는 碧骨郡이라 하는 데서도 알수있는 것과 같이 벼는 百濟에서 나락은(櫟翁碑說의 羅祿) 新羅에서 稻의 말임을 알게 된다. 合德池의 碧骨池는 百濟時代의 築堤한 碧骨池임을 確信할수 있다. 平原廣野에 稻田을 經營하자면 灌溉水가 絕對必要한 貯水가 緊要함에서 唐津의 소들강문(牛野江門)들에도 百濟當時에 碧骨池를 築造하였던 것을 推測하겠다. 그렇다면 그築堤年代는 果然 어느때일까 慰禮城時代는 아닐 것이며 熊津時代에 築堤하게 될것인데 熊津時代는 王權이 흔들리던 時代 國民이 安全성을 잃은 避亂의 六四年으로 이때에 國土를 開發할수 있는 大工事가 成就될수 있을까 疑問이 없을수 없다. 그렇다면 聖王이 所夫里에 移都한 後 一二〇餘年間の 事業이라고 할수밖에 없다. 百濟威德王의 在位四四年이거나 武王在位四一年 그어는 時代에 文物이 高潮되던 盛代의 碧骨池 築堤가 可能한 時代가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泗泚城王都人口가 一五萬 二〇〇〇戶(亡國時二〇〇城七六萬戶)를 가진 都下市民이라하면 消費되는 食糧도 따라서 莫大한 量의 米穀이 需用된다고 할적에 米穀을 生産하는 데에 國力을 投入하지 않을 수 없게 될것을 생각하면 泗泚城時代에도 前記兩代中 어느王代에 築堤되었던 것을 推定하게 되는 것이다.

文獻上的 合德池

西紀一四七四年(成宗五年)에 洪州合德堤가 決毀되었던것을 修築하여서 農作物이 잘되었다는 洪允成의 啓(20)가 있고 西紀一五〇六年(燕山君一二年)에는 洪州合德堤內에서 農土로 된직한 土地를 張淑容에게 주게하는 傳旨가 있다. 그리고 西紀一五〇七年(中宗二年)에는 洪州合德池를 忠勳府에 賜給한것이 不當하다는 憲府의 啓가 있었으나 不允을 하였고

同年에 다시 神堂에 돌려주자는데 에도 不允을 하였다. 西紀一六五二年 (孝宗三年)에 와서는 洪州合德堤가 諸宮家에 들어가는 立案이 尙장 寒心하다는 維城의 말에 停罷하도록 하였다(王朝實錄).

碧骨池(合德池)가 最初 堤防을 築造한 意圖는 百姓이 旱害와 같이 생 각하는 農業을 勸獎하고 旱害에도 稻穀을 生産하는 灌溉貯水池로 하여 國家大計를 攄구했던 愛民의 國家事業이었으나 後代에 와서는 權臣의 弄絡에서 힘써 만든 堤防이 缺壞가 되기도 하였고 廣域의 貯水池가 一時 旱災에서 水源이 枯渴되는 것을 奇貨로 삼아 農土로 還元하기도 하자 被害는 無力한 低級農民이 甘受하게 되는 것을 文獻上의 記錄에서 볼수 있는 것이다. 合德池만 하더라도 甲에서 乙에게 간단한 一言에서 넘어 가는 데는 最下層의 百姓은 一朝에 農土를 甲이 잃기도 하는 것이 朝鮮 王朝時代의 社會相이다. 非單 朝鮮王朝에 限하는 事例라 볼수 없고 高麗朝에서도 그같은 例가 없다고는 斷言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結 言

韓國에서 唯一한 最古池沼이며 歷史的 遺蹟으로 碧骨堤라면 金堤를 聯想하게 되었던 것이다. 碧骨은 곧 米穀生産池를 代名하던 百濟時代의 言辭인 同時 그 灌溉貯水池를 碧骨堤 또는 碧骨池로 名稱을 하였음을 金堤 碧骨堤와 合德 碧骨池에서 窺사리 알수 있는 것이다. 大平野의 米穀産出이 많은 그地方이 碧骨(벼골)이며 그貯水池를 碧骨堤(池)라고 하여 어색한 점이 없다.

由緒 깊은 兩處 碧骨堤(池)는 近代 水利事業이 大的으로 改良되는 데서 舊堤堰의 자취가 감추게 되었다. 金堤碧骨堤는 數個處로 切斷되어 서 堤內가 農土化하였고 堤防은 水路의 구실을 하게 되어 다만 西紀一四一五年(太宗一五年)當時의 碧骨堤重修碑가 新터리峯에서 옛날의 巨堤가 동강났던 社會의 歷史性을 默黙히 바라보고 있는 듯 하였다. 또한 唐津郡合德池 즉 碧骨池는 禮唐土組가 別途大規模의 貯水施設이 完備함에

서 無用池로 化하여 堤內貯水가 枯渴하는 데서 亦是 農土化하여 졌다. 將次 堤堰조차 破壞할 단계에 이르거나 淹을까 憂慮되는 것이다. 先人의 피와땀인 歷史的 遺蹟은 物質面에는 비록 損失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精神面에 있어서 보다 缺陷을 끼치게 하지 않도록 史蹟地로 保存措置가 要望되는 것이다. 一千餘年의 長久한 歷史를 지니고 있는 兩處 遺蹟이 오늘에 와서 그자취를 감추게 된다거나 將次 後孫에게 그부끄러운 말을 傳하게 할것일까 새것을 만들기 爲하여 恨것을 뜯어 없앤다는 것은 文化를 모르는 行爲이다. 옛자취는 옛자취대로 두고 새工作物을 新設하여 가는게 人間의 歷史的 事實이라면 溫古의 知新이 잘맞는 말인가 하겠다 (本稿는 一九六四年九月一三日 附同伴을 修補한 것이다)

(註)

- ① 溫祥王三八年과 仇首王一四年
- ② 朴赫居世一七年과 婆娑尼師今三年及 智證麻立干三年인데 智證麻立干三年에 始用牛耕이라 하여 牛耕을 비로소 使用한것을 알겠다.
- ③ 隕霜害麥이 溫祥王二八年 東城王二八年이고 大阜無麥이 己婁王一四年 古爾王一三年이며 隕霜殺菽이 己婁王二三年 隕霜害穀이 辰斯王二年이다.
- ④ 兩雹麥苗傷이 祇摩尼師今三年이고 兩雹桑麥皆傷이 元聖王二年이며 雹傷菽麥이 奈解尼師今二七年 訥祇麻立干四一年이고 다시 隕霜殺菽이 逸聖尼師今六年 智證麻立干一〇年 二回며 兩雹傷禾苗가 聖德王一九年 大風折木偃禾가 元聖王九年 隕霜害草가 奈解尼師今五年 다음에 霜雹害穀이 阿達嚴尼師今一七年 奈解尼師今一〇年 味鄒尼師今一一年 訥祇麻立干四年 全王一五年 全王三八年 眞平王四九年 元聖王五年 全王一一年等九回이다.
- ⑤ 蝗害穀은 肖古王四三年 全王四六年 比流王二八年 武寧王二一年 合四回
- ⑥ 新羅에서 蝗害穀은 南斛次次雄一五年 婆娑尼師今三〇年 祇摩尼師今一一年 阿達羅尼師今八年 助賁尼師今八年 沾解尼師今一三年 儒禮尼師今九年 訖解尼師今四年 奈勿尼師今三四年 全王四一年 全王四四年 實聖尼師今五年 慈悲麻立干八年 昭知麻立干一九年 聖德王一九年 景德王一三年 元聖王三年 全王一三年 文聖王一五年 憲安王一二年 總二〇回이다.
- ⑦ 新羅의 進嘉禾는 伐休尼師今三年을 除하고도 助賁尼師今一三年 儒禮尼師今一一年 訥祇麻立干三六年 考昭王六年 憲康王六年 五回이다.

⑧, 이鴈鴨池의 鑿池年代는 未詳하나 文武王二四年二月에 「宮內穿池造山種花草養珍禽奇獸」라는 記錄으로 鴈鴨池의 始掘年代를 짐작하겠으며 梅月堂詩四遊錄中 安夏池舊址에 對한 漢詩가 있는데 그內容을 보면 못하고 魚貝類를 기르되 引水하여 흐르는 소리가 높고 낮더라 이 뜻은 新羅國이 亡한後도 봄에 嘉禾를 심었더라. 「鑿池爲海長魚螺 引水龍喉勢發蛟 此是新羅亡國事 而今春水長嘉禾」詩內容도 그러하거나와 詩題가 現在 부르는 鴈鴨池와 音相似한 安夏池舊址로 보아서 朝鮮朝初葉까지 는 安夏池로 부르다가 訛傳되어 鴈鴨池로 된듯한 感이 있다.

⑨, 碧骨堤(金堤郡)在郡南十五里水源有三, 一出金溝母岳山南, 一出母岳山北, 一出泰仁縣象頭山會於堤與古阜郡訥堤水合于東津, 經萬頃縣南, 入于海○新羅 訖解王二十一年始築堤, 長一千八百步高麗時再修築後廢棄, 本朝太宗十五年遣 朴熙中與觀察使朴習審觀重修, 又今廢(重修碑文另別記)

⑩, 이礎石은 一邊長이 一、七尺으로 現在 金堤郡庭에 移轉하여 있다.

⑪, 白虎通에 人踐三尺, 法天地人, 再舉足, 步備陰陽이라고 하였다. 사람이 三尺을 밟는대 天地人을 뜻하는 것이고 두번 옮긴 步는 陰陽을 말한것이다. 함. 여기 一步는 六尺을 말함이다.

⑫, 一九七五年 碧骨堤發掘調査時 徐圭泳(當年七十七歲)氏로부터 들은 말인데 本人이 楊枝다리 밑에서 少時에 물고기를 잡았고 물이 이楊枝다리 밑을 흘렀다고 한다. 楊枝橋는 碧骨堤重修碑文中에 南有楊枝橋가 그곳이며 楊枝橋 畜水滂下處, 作柱架樑, 爲木柵五隔, 填之以土, 又其堤防殘圯處, 悉皆登土填平, 堤內外栽柳二行, 次固其基의 栽柳二行의 楊枝다리이다.

⑬, 신터리峯은 碧骨堤를 增修築한 朝鮮王朝初葉에 人夫들이 개흙을 저나르다가 積진(草鞋)에 묻은 흙을 털어서 山이 되었다는 傳說이다.

⑭, 괴밭이 논은 二〇〇坪可量되는 現在 水田인데 碧骨堤增築때 人夫의 食糧을 配給할적에 이논에 人夫를 集合시켜서 一回에 몇十石式을 配分하여 주었다 하는데서 이런 名稱이 傳한다 한다.

⑮, 濟州방축은 碧骨堤을 築造할적에 全州壯丁을 먼저 動員하여 거의 增築工事가 끝날 무렵에 濟州島人夫가 왔다. 虛行보다도 왔다는 標의으로 이곳에 방축을 갖던데서 지금과 같은 傳說이 남아 있다.

⑯, 廣州牧事禹希烈이 上書하기를 臣이 近者에 全羅道金堤郡碧骨堤를 둘러본 즉 四方周圍가 二息(二十里)이고 奇한 水門이 五處로 大川같이 灌溉가 可하고도 남음이 있다. 古人이 場坊을 始築하여 水利를 興하게한 그功이 甚大하다. 甲午(乙未의 誤)年에 修築한後 堤下의 廣野가 禾穀이 登豊하여 구름 같

으나 그러나 數處의 連筒이 堅實하지 못하여 田七十頃이 아직 未開墾地로 남아서 恨스러우니 일찌기 造築한 經驗者를 보내게 하여지이다. 前에 金堤郡事 金倣으로 그官守令과 더불어 連筒과 水口의 決毀處를 堅築함이 어찌하을지도 임금이 못되 碧骨堤下의 平野는 얼마나 되었오 六千餘結이오 임금이 朴習에게 물기를 碧骨堤는 卿이 觀察使 時節에 所築한 것인데 그利가 얼마나 되었오 對答하기를 堤上에 田이 水沒된 것이 많기는 하오나 堤下의 利는 거의 三倍이다. 近處百姓이 다들 標만 하고 아직 다개간하지 못한것 같다하니 임금께서 嘆息하되 이같은 立地를 累年토록 開墾를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開墾할 사람을 일찌기 하라 習이 말하기를 臣이 그當時에 金堤郡事 金倣으로 그工役을 監督하게 하였는데 民力을 不勞하고도 그일을 해냈으니 이사람을 크게 하시오 임금이 묻되 行年이 몇살이오 中年입니다. 어느골 사람이오, 光州人으로 金堤郡守時에 觀察使權權이 小罪를 犯한데서 罷職시킨 者이외다 하였나(王朝實錄)

⑰, 碑形은 高麗時代의 碑形을 따라서 上部가 梯形이고 座台는 自然板石에 세워졌다. 全高一、九六m 廣一、〇四cm 厚〇、二三m인데 碑前의 碑左右緣에는 寶相花文을 幅六、五cm 區劃內에 있고 碑額은 橫四九cm 縱二四cm를 區劃하였는데 區劃線外에는 鳳凰文이 左右에 陽刻되었다. 碑後面은 碑左右側을 一四cm 幅으로 區劃 碑上部는 頂點에서 二四cm 下地點에서 碑左右區劃과 一直線으로 連結되었다. 그리고 區劃內面에는 當時築堤에 參與한 人名이 記載되고 碑左側區劃外로는 重建者 朴習의 後孫礎의 後孫名을 陰刻하였다. 碑石質은 水成岩으로 石質이 弱하여서 彫刻에 容易한 石材이다.

⑱, 傳教碑의 碑身은 高一七·一cm 廣五六cm 厚二五cm의 花崗石이며 碑蓋는 高四三cm 側面廣六八cm 正面廣이 九七cm 碑座는 九九cm에 七〇cm의 一石으로 되었다.

⑲, 蓮堤重修碑(康津郡合德里) 上之二十五年春初 中外臣庶民奏書疏 講求古陂渠之制 蓋重農也 牧使金侯履膺以蓮堤闡耨 下籌司籌下 州俾掌其役 越八月農既暇 畫得四邑丁 躬董實鍾陽雨無懈 人倍其功 不旬日而築完 昔之夷實者 疏矣 平陂者 高矣 毀墮者 堅矣 又請簡闡材 備蓄洩之宜 於是飲於堤之水 耕於堤之野者 胥慶曰 前年革綱子 供魚之弊 寬我一分之力 今焉經始大役 我萬州之利 賢者太守也 遂刻石紀實以須其對揚 我 聖朝重農之化云爾 嘉慶五年庚申春立

⑳, 洪州合德里가 決毀되어 蓬蒿의場이 되었었는데 洪允成이 王命으로 가보고 다시 修築하였던바 今年에 近年에 없는 豊作을 이루었다는 允成의啓이다. (前扶餘博物館長)